



보도시점 2024. 4. 11.(목) 배포 2024. 4. 11.(목)

## 재외동포청,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

### - 한국 발전상 알리기 사업 등에 적극 지지하며 향후 추진방안 협의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11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.

- 전체회의에 앞선 위촉식에서는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(위원장)를 포함해 고상구 베트남 K&K 트레이딩 회장, 이진영 인하대 교수, 최미영 미국 다솜학교 교장,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등 재외동포, 언론, 교육, 경제 분야 전문가 11명이 초대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.

□ 정책자문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 및 주요 사업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자문 및 현안에 대한 수시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.

#### <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요>

- ❖ (근 거) 재외동포청 훈령 「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」
- ❖ (구 성)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
  - 임기는 2년, 1회 연임 가능
- ❖ (조 직) 2개 분과(재외동포정책, 교류협력)로 구성

□ 이 청장은 위촉식에서 “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국격에 걸맞는 동포 보호·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이어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 청장은 ▲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알리기 ▲ 국내동포에 대한 지원 ▲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원 등 동포청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동포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제안을 당부했다.

○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교육과 해외 교과서에 이를 수록하는 프로젝트가 동포청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, “차세대 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□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이 사업이 동포청의 핵심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.

○ 특히, 금일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인기 교수는 교과서의 파급력과 지속성을 감안시, 동포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면서, 위원장으로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위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□ 참가자들은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 등 국내동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동포의 정착 지원 대책 마련과 이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도 전적으로 공감했다.

○ 또한 위원들은 국내동포 지원과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,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국내동포와의 소통,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당부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 및 수시 분과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는 자문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명단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장	김동곤	032-585-3128
		담당자	사무관	임성근	032-585-3130
			주무관	권 혁	032-585-3135

(가나다순)

성명	소속 및 지위
강성철	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본부 기자
고상구	베트남 K&K 트레이딩 회장, 한상 리딩 CEO
김영길	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24 운영위원
민미소	Maison Chen Law Group(호주) 변호사
박기태	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설립자 및 단장
박인기 (위원장)	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
신연정	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부생
이영환	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
이진영	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
최미영	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 교장
최병천	월드코리아신문 편집이사